

# 우리농업의 ‘잠재된 가치와 힘’ 발현하자

■성진근/ 충북대학교 교수

**월** 드컵 4강 진출의 위업을 달성한 한국 축구대표팀 선수들과 히딩크 감독에 대한 국민적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다. 사실, 월드컵에서의 1승만이라도, 그래서 16강 진출을 달성했으면 하는 것이 개최국인 우리의 소망이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16강은 물론 8강을 지나서 당당히 4강에 까지 진군한 것이다. 도무지 믿기지 않은 일이 현실화하자, 온 국민들은 모두 붉은 악마로 변해 환호하였고 세계인들의 경탄도 폭죽처럼 만개하게 된 것이다. 무엇이 이런 기적 같은 일을 가능하게 했는가?

## ‘숨겨진 잠재력’ 에너지로 승화시켜

히딩크 감독이 우리 대표팀을 맡고 나서 깜짝 놀란 일 중의 하나는 우리 선수들의 순수함이었다고 한다. 축구선진국의 유럽선수들

을 대표팀 선수로 선발하기 위해서는 각 선수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한 지루한 협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갖가지 특혜와 보상조건 없이는 유명선수들을 모아서 대표팀을 구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선수들의 경우는 너무나 달랐다는 것이다. 대표팀에 선발해주는 것만으로 너무나 감지덕지해서 “뼈가 부러지더라도... 조국과 민족의 영예를 위해서...”하는, 상업주의에 찌든 유럽 선수들과는 전혀 다른 열정과 순수함으로 가득 찬 젊은이들이었다는 것이다.

비록 세계랭킹에서는 까마득히 떨어져 있는 수준에 처해 있지만, 한국선수들의 순수한 열정은 조련하기에 따라서 세계적 수준과 어깨를 겨룰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을 맡아



서 세계가 깜짝 놀랄 일을 해보자고 결심했다는 것이다. 히딩크는 선수들의 열정과 순수함을 불태울 목표를 제시했다. 그리고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전술을 개발하였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약점(체력)을 보완할 훈련도 체계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FIFA 랭킹 40위권 밖에 머물러 있던 한국축구가 10위권 안에 속했던 축구 선진국들을 걸리는 데로 무릎을 꿇리면서 세계 4강에까지 진출하게 된 것이다.

어떤 이는 “하느님이 보우하사...”라는 애국가 덕이라고 한다.

사실, 대륙의 끝머리에 붙어 있는 반도에 위치한 까닭에 끊임없이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침략에 시달려 오면서도 단일민족의 역사를 변변히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

의 보우”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미국대륙 끝에 붙은 플로리다 반도가 독립국가로 살아 남는 일을 어찌 생각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민족을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택받은 민족(Chosen People), 이를 우리말로 하면 조선민족(Chosun People) 아닌가? 선택된 민족의 숨겨져 있는 잠재력을 끌어 모아 하나의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만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는가? 이루지 못할 일이 무엇 있겠는가?

#### **한국농업의 ‘공익적 기능’ 수입 어려워, 선진국의 자국농업보호 의지 탄산지식 심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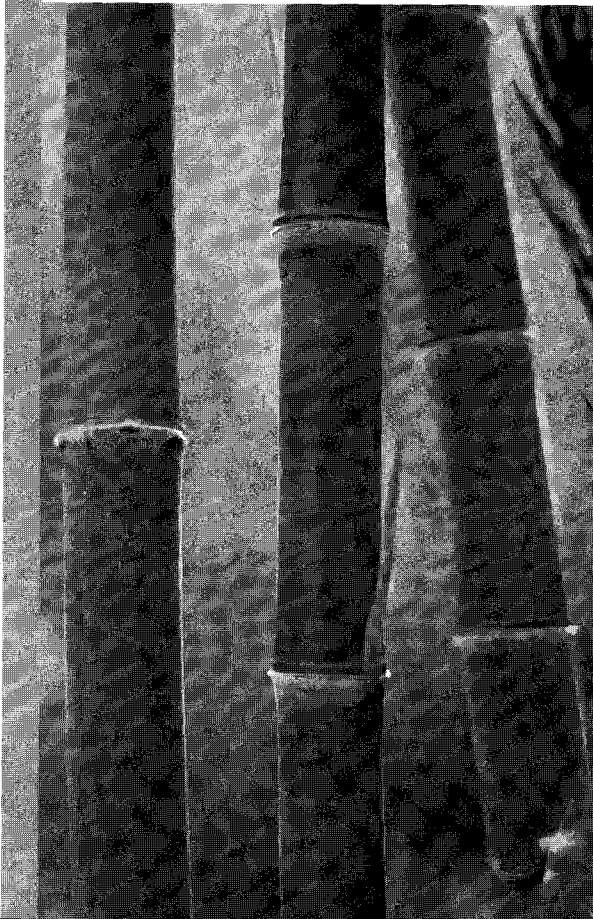
한국농업은 그야말로 벼랑 끝의 위기에 처해 있다. 전 농산물의 과잉생산기조 속에서 농산물가격은 폭락하고 있으며, 도·농간 소

특격차는 확대일로이다. 농민들은 희망을 잃고 농사를 포기하고 농촌을 떠날 생각만 하고 있다. 2004년 쌀 시장의 완전개방은 이미 주어진 재앙이고, 생산비가 높아서 경쟁력이 없는 한국농업을 시장논리대로 포기하는 대신에, 값싼 수입농산물을 사먹자는 주장들마

저 더욱 공공연해지고 있다.

한국농업을 되살리는 길은 마치 랭킹 40위의 한국축구를 세계 4강에 진출시키자는 주장과 같이 공허하고 가망 없는 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농업이 이대로 위축되어 시장에서 사라

## 농업 이끄는 관료·지도자, 기진맥진 농업인에 ‘히딩크형 처방’ 주어야 뚜렷한 ‘목표·전술·국민성원’ 우리농업인에 ‘희망의 내일’ 찾아 줄 것



진다면,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재앙을 두고 두고 받게 될 수밖에 없다. 부족한 식량은 해외농산물로 수입해서 어떻게든 충당한다고 치자. 그러나 장마철의 논의 담수기능으로 막아온 홍수피해는 어떻게 대처하려는가? 논지의 지하수 함량기능의 저하로 인한 피해는 또 어찌하려는가? 농작물 생산과정에서 수행하는 대기와 수질정화기능의 약화로 인한 국민적 부담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국민의 주식마저 해외 의존적인 구조로 바뀌고 난 후의 순수 식량수입국으로 냉엄한 국제경쟁질서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해가길 어찌 기대할 수 있겠는가?

시장가격의 크기로 환산되지 않는 한국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크기는 기회비용으로 환산할 때 계측하는 방법에 따라서 농산물 생산가액의 2~8배에 이른다. 이러한 공익적 기능들을 누가, 어떤 나라로부터, 어떤 비용을 치르고 수입하여 공급할 수 있겠는가? 농

업경쟁력이 높은 미국 등 선진국들이 자국농업보호에 해마다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붓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국내농업보호비용이 농업포기 이후의 비용보다 높다는 사실을 자각한 때문이 아니겠는가?

한국축구의 4강 진출이란 위업은 12번째 선수인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한국농업을 살려내는 길이 우리 고향을 살리고 우리사회의 비용을 궁극적으로 줄여나가는 길이란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국민적 성원만 있다면 한국농업을 당당한 산업으로 살려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도 없다. 그렇다면 한국농업의 가능성과 잠재력은 무엇인가?

### **최상의 품질 · 기술 · 자재산업, 낮은 가격경쟁력 극복 가능**

좁은 땅에 과도한 인구를 부양하기 때문에 우리의 땅값은 지나치게 높다(경쟁국의 10~20배). 또한 고부가가치 산업화로 인한 국내 인건비도 노동생산성을 고려한다면 세계 최고수준이다. 이 때문에 농산물 생산비는 경쟁국의 몇 배나 높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가격경쟁력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농업은 국제경쟁시장에서 퇴출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4계절이 분명한 기후 때문에 한국 농산물의 품질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또한 절대 빈곤시대의 터널을 지나오는 동안에 체화된(Embodied) 한국농민의 기술수준은 세계최고 수준에 와 있으며, 농업생산을 뒷받

침하는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업관련산업의 발전정도도 대단히 우수하다. 한국농산물에 스며들어 있는 이러한 강점(Strength)요인이야말로 한국농업의 잠재력이요, 가능성인 것이다.

사람들은 살기 위하여 먹는다. 그러나 일정한 소득수준에 이르면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살게된다. 바꾸어 말하면 먹는 것을 즐기 위해서 사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 단계에 이르면 식품의 가격은 큰 문제가 안 된다. 값이 비싸더라도 맛있고 건강에 좋은 농산물을 사람들은 선택하게 된다.

급속한 산업화의 덕분에 세계인의 소득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식품소비 행태도 고가격, 고품질 식품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생산비가 비싼 한국농산물의 선택은 그러므로 고품질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뿐이다. 한국농업을 앞에서 이끌고 있는 관료들과 농업계 지도자들은 기진맥진한 한국농민들에게 히딩크 감독이 처방한 것과 같은 목표를 부여 해주어야 한다.

잠재력을 깨우쳐 주고 가능성을 실현할 기술을 확실하게 제시해야 한다. 목표와 전술이 뚜렷하다면, 국민들의 성원도 뒤따라서 결국 우리농업의 잠재력은 폭발하여 가장 불리한 한국농업을 당당히 세계속에 우뚝 세워 놓는 기적과도 같은 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국민적 저력을 이미 세계만방에 과시한 우리가 아닌가?

밤이 깊으면 새벽은 온다. 착하고 순수한 우리 농민들이 희망으로 뚝뚝 뭉치는 내일은 반드시 온다. **농약정보**